표지

(에어북 제작이 결정되면 표지를 제작해 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한글지도와 글쓰기를 위한 책옮겨쓰기 방법 안내(필사)**

## 

작가 소개

민정일 (https://alook.so/users/r9tGDDK)

20년차를 넘어선 초등학교 남교사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즐기며, 독서 등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음

목차

서문)

1장)책옮겨쓰기를 하면 되겠다.

2장)책옮겨쓰기를 하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3장)책옮겨쓰기를 이렇게 해보세요.(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4장)책옮겨쓰기를 매일하며 글쓰기를 하다.(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본문

## **장제목) 서문 (200~500자)**

## **10년의 세월이 쌓이면 방법이 보인다.**

책옮겨쓰기를 통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한글지도와 독서지도를 해온지 10여년이 가까이 되어 갑니다. 막상 처음에는 그냥 해보자는 식으로 했지만 하다보니 요령도 생기고 방법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찾아보니 필사에 대한 책들이 꽤 있는데 모두 저의 상황과는 맞지 않았지만 미리 읽었더라면 참고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 또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참고가 되길 희망하며 적게 되었습니다.

**(소제목)**

본문

(사진1)

캡션:

## **장제목) 1장 (1,000~3,000자)**

# **1. 책옮겨쓰기를 하면 되겠다.**

##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을 하면서 한글 지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받아쓰기는 이후에도 언급하겠지만 서열화와 100점에 대한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맹신(100점을 받으면 한글을 잘 안다)으로 인해 꺼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항상 낮은 점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유명한 작가에게 무명의 작가에게 가서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세익스피어를 계속 따라 쓰세요. ", 아 그렇구나하고 머리에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책옮겨쓰기(필사)를 해보자.

# **1-1. 2학년 담임이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어 5년만에 처음으로 2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알림장을 써야 했습니다.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한글을 잘 몰라서 받아쓰기로 한글을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알림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례 시간이 길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사가 출력해서 알림장에 붙이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출력하는 일은 교사의 시간을 낭비하고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교실마다 레이져 프린터가 있어서 출력하기가 수월하지만 이 시절에는 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했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8년 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알림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알림장을 통해 나가는 것은 부모님이 알아야할 사항이나 준비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알아야할 것은 가정통신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휴대폰 문자를 일괄로 보내면 되고, 준비물은 학교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글을 시점(2024년)에도 1학년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 초기에 부모님들에게 우리반은 알림장, 받아쓰기, 준비물, 일기쓰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달 학부모 상담을 하며 학부모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편해도 되는가라며 아주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어 다시 알림장, 받아쓰기, 준비물, 일기쓰기를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잘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받아쓰기를 해야 했습니다. 한글지도는 받아쓰기를 통해서 지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학기마다 받아쓰기 급수표를 인쇄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집에서 연습해서 오도록 했습니다. 매주 받아쓰기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아이들의 표정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았습니다. 100점이 아니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몇년 뒤 1학년 담임을 하면서 자폐성향의 아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받아쓰기 100점이 아니면 99점을 받아도 불만족의 표현으로 받아쓰기 결과 종이를 구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받아쓰기(시험 형식의 받아쓰기로 제한)를 통한 한글지도가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1-2. 한글 학습은 받아쓰기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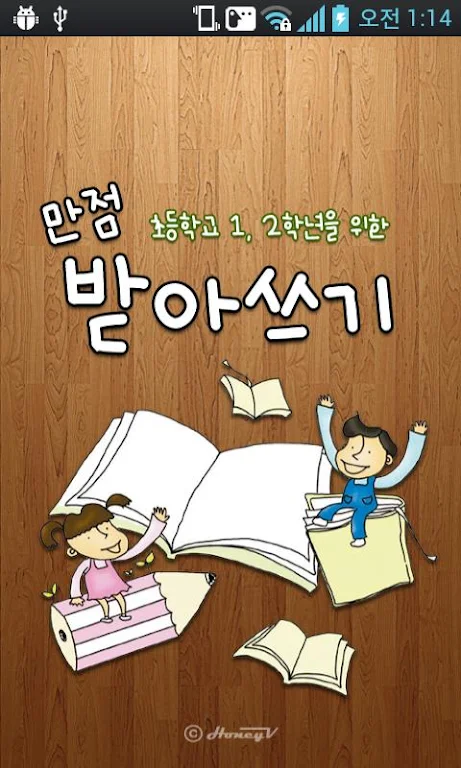
한글 학습은 받아쓰기로 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한글 학습지도는 받아쓰기로 했습니다. 2024년에도 앞으로도 많은 선생님들이 받아쓰기로 한글 지도를 하고 계실 것이고 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받아쓰기의 문제로 인해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받아쓰기를 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안겨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사실 한글 지도를 위한 다양한 교재를 각 시도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배포하지만 사용자인 교사들의 책꽂이에 꼽히는 신세가 다반사입니다. 받아쓰기는 한글을 배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에서도 받아쓰기가 행해지고 있으며, 사실 학습의 기본은 모사를 기본으로 하듯이 받아쓰기는 한글을 배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도움과 유치원에서 미리 한글을 배운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격차가 심해 어떤 아이는 0점을 어떤 아이는 100점을 받으면서 감정적 소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학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극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꼭 이 방법이어야 할까요?

# **1-3. 받아쓰기는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받아쓰기는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받아쓰기를 잘할까요? 연습을 많이 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번 쓰고 읽으며 연습을 많이 하면 누구나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모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항상 낮은 점수로 자신감을 잃어가는 아이들이 늘어 나기도 했습니다. 시험이라는 방식과 숙제로 된 받아쓰기를 좀 더 높은 점수를 얻도록 하기 위해 아침 활동 시간이나 국어시간이 남으면 교실에서 다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받아쓰기 시험을 쳤습니다. 선생님이 두번 불러주면 아이들은 그 시간 안에 모두 정확하게 써야 했습니다. 나아지는 아이도 있고 여전히 제자리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 **1-4. 부모님을 돕기 위해 받아쓰기 앱을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을 돕기 위해 받아쓰기 앱을 만들었습니다. "만점 받아쓰기"라는 이름으로 1, 2학년 대상의 받아쓰기 급수표를 만들어 "인디스쿨"이라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약 7,000명 정도가 사용하는 앱이 되었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면, 부모님도 편하게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험이라는 한계와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자료를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로 다가왔습니다.



캡션: 만점 받아쓰기 앱 첫 화면



캡션: 만점 받아쓰기 앱 구성 화면

# **1-5. 받아쓰기 채점은 100점부터 시작합니다.**

받아쓰기 채점은 100점부터 시작합니다.

연습을 하지 않아서, 연습을 해도 어려워서 낮은 점수를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띄어쓰기 하나, 받침 하나만 틀려도 10점이 날아갑니다. 결국은 10점을 받거나 0점을 받는 일도 생깁니다. 낮음 점수는 아이들의 의지를 꺾고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채점 방식을 바꿔 보았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띄어쓰기 하나, 맞춤법 하나 틀리는 경우, 1점씩 감정해가는 방법을 시도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반 전체 평균이 90점을 넘었으며, 10점 받던 아이가 80점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폐 성향의 아이가 받아쓰기 결과지를 구겨서 교실 바닥에 버리는 것을 보고 살펴보니 99점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가 100점이 아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평가방식의 받아쓰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 **1-6. 한글 학습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책옮겨쓰기를 만나다)**

한글 학습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책옮겨쓰기를 만나다)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1학년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따라쓰기에 대한 이야기가 떠 올랐습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등은 초등학교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배워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침 활동으로 남는 시간에 연습을 하는 것이 교사가 일일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따라쓰기만 해도 되니 여러가지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장제목) 2장 (1,000~3,000자)**

# **2. 책옮겨쓰기를 하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책옮겨쓰기를 떠올리고 교실에 적용한지 이제 10년도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이 생겼습니다.

# **2-1. 학교를 긴장하게 한 1학년을 만나다.**

학교를 긴장하게 한 1학년을 만나다. 저는 3, 4년마다 학교를 옮기게 되면 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려움을 주는 아이들을 미리 파악해 두곤합니다. 그러다가 같은 학년을 할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아이를 맡았습니다. 저는 당싱 6학년 담임을 하고 있었고, 아이는 1학년이었습니다. 다음 해에 제가 2학년을 하면서 결국 그 친구의 담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아이와 실랑이를 하며 손을 물린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가 아픈데 가족 중 누구도 병원에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함께 가서 치료를 받게 해준 적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책 옮겨쓰기를 1바닥씩 늘렸습니다. 벌칙이지만 성장할 수 있는 벌칙이 되었던 것입니다. 2학기가 되었을 때 글쓰기 지도를 하면서 "시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타임 슬립의 내용으로 시간이 계속 돌아가서 아침에 등교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글들을 보면서 아이에게 글쓰기 재능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제가 다른 학교로 가야 했지만 3학년이 되어 담임의 머리를 때리거나 하는 여러 일들이 제 귀에까지 들리기도 했습니다. 4학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글쓰기를 계속 하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 **2-2. 선생님, 저는 오늘 책옮겨쓰기 열바닥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오늘 책옮겨쓰기 열바닥을 했어요. "비타민 월드"라는 경제 개념을 교실에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세금으로 비타민 1개씩을 내야하고 급식을 먹기 위해 또 비타민 하나를 내야 했습니다. 비타민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발표를 열심히 하거나 책옮겨쓰기 1바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직업도 만들고 은행을 만들어 예금한 비타민의 이자를 주는 일도 생겼습니다. 2학년이다보니 힘들게 번 비타민을 그냥 먹어 버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명이 기억에 남습니다. 200개의 비타민을 모았고, 매일 책옮겨쓰기를 10바닥을 해냈습니다. 이후 비타민 도난 사건이 생겨 "비타민 월드"는 끝을 내야 했지만 아이들의 다양한 성향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2-3. 책옮겨쓰기가 빨라졌어요.**

책옮겨쓰기가 빨라졌어요

어느 교실이나 느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고 1:1 지도가 가능해지면 학생에게 맞춰가며 지도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느린 아이이에 대한 지도가 천차 만별입니다. 모두들 노력하고 계시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있다고 해도 공유하기 어렵고, 교사 개인의 특성에 따른 방법론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책옮겨쓰기입니다. 매일 한바닥을 채우고 매일 두바닥을 채우고 글짓기를 매일하면서 아이는 기본적으로 독서와 한글을 가까이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활동 10분동안 한바닥을 쓰지 못하던 아이가 어느날 한바닥을 모두 써서 칭찬도 받고 스스로 기뻐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매일 빨리 쓰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는 사람의 특성을 봤을 때 당연히 성장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2-4. 선생님, 우리 아이는 한글을 잘 몰라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한글을 잘 몰라요.

1학년 담임을 맡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한글을 경험하지 못한 채 입학을 하거나 느린 학습자의 경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글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 오는 이유가 바로 한글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이니 지금 하지 못해도 됩니다. 천천히 배워 나갈겁니다." 시간이 흘러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은 모두 읽는 것이 쉽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십권의 책을 읽고 필사까지 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문장을 외우고 쓰는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 **2-5. 1학년 2학기 전학생, 늑대 소년**

1학년 2학기 전학생, 늑대 소년

글을 쓰는 시점인 2024년에서 10년 전 쯤 1학년 담임을 맡아 한 학기를 보내고 2학기가 되었을 때, 전학생이 한명 왔습니다. 그리고 꼭 이전 담임에게 전화를 달라는 메시지와 전화번호가 써진 메모를 받게되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 아이인가 싶은 생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산다. 2. 할머니가 한글을 몰라 가정통신문을 보낼 때는 꼭 전화해서 알려줘야 한다. 3. 아이가 아직 한글을 모른다 등 여러 가지 걱정에 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반은 알림장과 받아쓰기를 하지 않으며, 준비물도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제가 할머니께 연락드리겠지만 아마 상담을 위한 전화 말고는 없을 겁니다." 여전히 불안한 숨을 남기며 전화는 끊어졌지만 저에겐 그리 어려운 일이란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이런 때를 위해 매년 학교에서 어렵다는 아이들의 담임을 맡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대 다닐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아니였지만 주어진 일에는 책임을 다하고 싶었기에 저만의 방식들을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아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연락하니 집을 나가 학교로 향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급하게 아이의 집 방향으로 가보았습니다. 가는 도중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기가 싫었겠죠? 자기는 한글도 모르고 앉아서 수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요. 그러나 학교는 꼭 와야한다고 타이르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선생님이 또 찾으러 올것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저는 집 근처에 있는 무료 공부방을 수소문해서 아이를 등록시키고 한번씩 찾아가 잘하고 있는지 담당 선생님과 상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책 옮겨쓰기를 한 후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지고는 공부방에 갔다가 집을 오가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쉽게도 1학년 동안 한글에 대한 자신감을 갖진 못했고, 저는 다른 학교로 발령을 받아 가게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어 담임이 되신 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아이의 이야기를 수시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2학년 2학기가 되어서 이젠 한글에 대한 어려움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 **2-6. 어머니, 저희 반은 받아쓰기, 준비물, 알림장, 일기쓰기가 없습니다.**

어머니, 저희 반은 받아쓰기, 준비물, 알림장, 일기쓰기가 없습니다.

2024년을 맞이한 올해도 어쩌다보니 1학년 담임을 3년 연속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남교사가 1학년 담임을 한다는 것에 놀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선생님들이 아이를 꼼꼼하게 잘 챙기니 당연히 저학년은 여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걱정은 "어머니, 저희 반은 받아쓰기, 준비물, 알림장, 일기쓰기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더 커져만 갔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달을 지내고 두달을 지내며, 이렇게 편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어머니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2학년이 되면 다시 모든 것을 해야하는데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걱정마세요. 우리 반 아이들이 하루에 학습하는 학습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집에 가면 쉬어야하고, 준비물은 제가 준비할 것이고, 책옮겨쓰기를 통해 한글을 익히고 매일 글쓰기로 넘어가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담임을 맡으면서 저는 몰랐지만 저를 아시는 어머니는 "선생님 반이 되어서 다행입니다"라는 말까지 전해주셨습니다.

# **2-7. 책옮겨쓰기 귀찮아, 책을 외우자!**

책옮겨쓰기 귀찮아, 책을 외우자!

학교에서 이런 저런 많은 일을 하기에 저는 항상 제가 원하는 학년과 업무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해에는 체육전담을 맡아 6학년 아이들에게 체육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체력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구부 부감도 맡고 있었기에 3학년 야구부원이 있는 반의 문제를 학기초부터 알고 있었고, 담임과 상담을 몇 번 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 선생님은 5월에 병가를 내시고 연말에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반을 맡은 기간제 선생님 한분은 하루를 하고 그만두셨고, 아직 발령도 받지 못한 교대 졸업생은 한달 넘는 기간을 고생하며 정말 교사의 길이 자신의 길인가를 고민하다 결국 7월에 그만 두게 됩니다. 학부모들도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일 만도 했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 등 여러가지 압력을 학교에 행사하여 교실이 정상화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월 첫주 마지막 카드로 저와 교장, 교감 그리고 3학년 해당 학반의 모든 학부모가 학교 도서관에 모였습니다. 학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카드로 저를 해당 학반의 담임을 맡기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확정되고 제가 어떻게 반을 이끌 것인가에 대해 말을 할 때 부족한 믿음의 눈으로 이런 저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맡아 정상화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학부모들의 의견까지 수용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의 불만은 1주일 만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에 3명의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중 야구부 아이가 유독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가까이 오라고 하니 그냥 도망치는 겁니다. 전 어떻게든 아이를 따라 잡았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 바로 학교로 오시라는 부탁과 함게 교감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한 뒤 상담하는 동안 반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모니모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부모님은 아이의 말을 믿고 의심부터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때렸다는 말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상황이 벌어지자 마자 저는 녹음기를 켜고 모든 상황을 녹음해두었고 어머니에게 녹음의 내용을 들려드리며, 아이가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판단은 천천히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10번 정도의 이러한 상황은 반복되었지만 점차 어머니를 부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가는데 한달이 걸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반을 맡아 상황을 살피니 실제적인 문제는 여학생들에게 있었으며, 그 부모들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이 앞에서 학교 이야기와 진행 상황등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구요. 이 때도 책옮겨쓰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으로 자주 자리를 비우더라도 아이들은 책옮겨쓰기를 하며 다른 활동을 자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벌칙으로 10바닥을 하고 집에가는 사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중심에 있던 다른 남자아이 한명은 어느날부터인가 같은 내용을 계속 써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한바닥을 다 외워서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응? 그럼 이제는 그 이후를 외워서 써봐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무사히 4학년이 되었습니다.

# **2-8. 3~6학년은 사회, 과학 교과서 책옮겨쓰기를 하다.**

3~6학년은 사회, 과학 교과서 책옮겨쓰기를 하다.

고학년에도 책옮겨쓰기를 적용해보아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3~6학년은 한글 익히기 보다는 어려워하는 학습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보통 힘들어하는 과목이 사회와 과학이니 두 책을 책옮겨쓰기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꾸준히 한 친구는 3번정도 사회나 과학책 전체를 책옮겨쓰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장제목) 3장 (1,000~3,000자)**

# **3. 책옮겨쓰기 이렇게 해보세요(초등학교 1, 2학년 담임)**

3. 책옮겨쓰기 이렇게 해보세요(초등학교 1, 2학년 담임)

책옮겨쓰기의 간단한 방법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학부모 안내용으로 영상도 만들었으니 참고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학부모 대상 안내 영상 : <https://youtu.be/nozTATjlauE>

첫 시작 교본 링크 : <http://naver.me/Fm2Bzk2h>

양식지 링크 : <http://naver.me/Fm2Bzk2h>

월별 검사표 링크 : <http://naver.me/FUz4Xdwf>

# **3-1. 책옮겨쓰기 종이(양식)는 어디에 있지?**

책옮겨쓰기 양식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시중에 파는 칸공책과 다를게 없지만 낱장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글쓰기할 때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5천장 정도를 인쇄를 맡깁니다. 그리고 항상 정해진 곳에 둡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양식지 링크 : <http://naver.me/Fm2Bzk2h>

# **3-2. 책옮겨쓰기 교본 따라쓰기**

교본은 2015개정 국어과 1학년 1학기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동화책을 보며 책옮겨쓰기를 시켰더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교본을 만들게되었습니다. 물론 글의 내용이 칸에 들어가 동화책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한 바닥 정도는 그냥 외워서 쓰곤 했습니다. 약 1주에서 2주 정도 교본을 따라 쓰게 하면 어떤 아이는 문장 기호들을 뺀채 쓴 아이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이는 학생이 책을 볼 때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면서 읽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첫 시작 교본 링크 : <http://naver.me/Fm2Bzk2h>

# **3-3.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기**

매일 책옮겨쓰기 한바닥이나 두바닥이 목표이지만 처음에는 시간안에 쓸 수 있는 만큼만 쓸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한글에 익숙한 정도와 글쓰는 속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물론 후에는 매일 1바닥을 해야하니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다온 후 다 쓸 때까지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빨리 놀고 싶은 동기가 발생해서 빠릴 하는 아이도 생기고, 그냥 시간만 죽이다가 수업을 마치고 제 앞에서 쓰고 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 **3-4. 아침 독서시간엔 책옮겨쓰기 한바닥**

제일 활용하기 좋은 시간이 아침활동 시간입니다. 책옮겨쓰기 가장 느린 독서이기도 하니까요. 아침활동으로 독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빨리 쓰는 아이들에게는 자유활동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집에서 너무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도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책옮겨쓰기 한바닥에 대한 보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줘야 적절한 보상이 될까요? 계속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 **3-5. 책옮겨쓰기 두바닥**

약 한달을 책옮겨쓰기 한바닥씩 하다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바닥을 하게되는 시기가 다가 옵니다. 이때는 양식지를 양면으로 인쇄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올해는 양식지가 처음부터 양면 인쇄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쓰던 것이 남기도 했고 꼭 단면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기도 합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이 양식지에 배칸 수학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앱을 사용해서 캡쳐해서 온라인 수업노트에 올리라고 하지만 초기에는 한바닥은 책옮겨쓰기 뒷면은 100칸 수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빙고판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 **3-6. 매달 책옮겨쓰기를 집으로 보내기**

책옮겨쓰기 결과물은 매달 마지막 주에 집으로 보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한장씩 받은 책옮겨쓰기 결과물을 한곳에 모아두고 조금씩 나누어주며 친구들 책상에 두는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것에도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 몇장을 했는지 자랑도 합니다. 물론 많이 한 아이는 벌칙을 많이 받은 것이지만 그날은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한달을 20일 기준으로 20장씩이니 양이 꽤 됩니다.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칭찬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 **장제목) 4장 (1,000~3,000자)**

# **4. 책옮겨쓰기를 매일하며 글쓰기를 하다.(초등학교 1, 2학년)**

책옮겨쓰기를 2달 정도 하게 되며 아이들도 문장에 익숙해지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저는 떠오르는 것을 바로 쓰는 것을 아이들에게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첫 글쓰기는 단어쓰기입니다.

# **4-1.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쓰기**

"생각은 연필로 하는 것이다. 연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자주 말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지만 찾아보니 "연필로 하는 생각만이 진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버지니아 울프가 이미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단어만 쓰는 것입니다. 연습장 종이를 한 가득 채우기가 목표입니다. 단어별 띄어쓰기는 당연히 해야합니다. 어떤 때는 주제를 던져주고 떠오르는 단어들을 모두 쓰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쓸거리가 참으로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게됩니다. 그러면 다시 떠오르는 무엇이든 적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두바닥을 다쓴 친구들은 자유시간을 줍니다. 보상은 소중합니다.

# **4-2.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쓰기**

글을 쓸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쓰라고 합니다. 띄어쓰기, 문장 부호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글로 옮겨적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생각은 연필로 하는 것이라는 말을 강조하죠. 보통은 다쓰지 않아도 일정 시간이 되면 걷습니다. 지금 그만큼이 그 아이의 상황임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고학년의 경우, 5분 글쓰기라는 형태로 주제어를 제시며 글을 쓰게 하기도 합니다.

# **5-3. 주제어를 보면 떠오르는 문장쓰기**

주제어는 그날에 따라 다릅니다. 비오는 날이면, 빗소리, 빗방울, 우산 등 비와 관련된 주제를 쓰기도합니다. 사실 주제란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이왕이면 다양한 생각을 풀어 낼 수 있는 주제를 꼽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유주제입니다. 주제에 맞춰 글을 쓰는 것보다 글쓰는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 **5-4. 띄어쓰기와 맞춤법은 책옮겨쓰기를 통해서 배우기**

글쓰기는 바른글씨 쓰기가 아니며 띄어쓰기, 맞춤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글쓰기 외의 것이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정작 써야할 내용은 날아가 버리고 흩어집니다. 띄어쓰기와 맞춤법은 책옮겨쓰기에 맡기고, 바른글씨 쓰기는 국어활동 제일 뒷쪽 바른글씨 쓰기 교본을 한자라도 똑 같이 쓸 때까지 천번이고 만번이고 쓰고 지우라고 말해줍니다.

# **5-5. 글쓰기는 매일 집으로 보낸다.**

책옮겨쓰기는 모아서 한달에 한번 집으로 보내지만 글쓰기는 매일 집으로 보냅니다. 부모님과 이야기할 주제도 생기고 부모님도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지요. 디태치먼트(detachment)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인 애드리언 브로디가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에게 글쓰기를 추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글쓰기는 우리의 살아 있는 기록입니다. 일기 쓰기의 목적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얼룩소 로고)

제목 제목

부제 부제

발행일 2024년 3월 11일

지은이 |

펴낸곳 | 얼룩소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2길 20, 4층

출판등록 | 2023년 11월 8일 제 2023-000077호

EPUB 제작 |

ⓒ ㅇㅇㅇ 2024

ISBN (발급 진행 중)

정가 1,500원